2007 건설의날기념금탑산업훈장수상

황인수 성일건설(주) 대표이사회장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 사람의 삶과 혼을 담는, 장인정신이 깃든 건설을 지향 "

황인수 성일건설 대표이사 회장(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이 2007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황 회장은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건설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며, 끊임없는 품질 혁신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건설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황 회장은 1961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졸업한뒤서울시교육위원회시설과에건축기사로근무하며설계 · 감리업무를맡아수행하면서건설업과인연을맺었다. 또 신일토건에 입사하여서는 현장 시공 경험과 공사 총괄 업무 능력을 쌓았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1971년 현재의 성일건설을 창업하였고, 수원 화서 임대아파트 360세대를 시작으로 약 9,000세대의 장기임대아파트를공급함으로써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에지대한공헌을했다. 또한 안양역사를 현대식 복합 건물로 개발해 철도 이용 승객의 안전과 쾌적성을 향상시키는동시에초대형백화점을유치하는등낙후된안양역주변개발유도를통해지역경제발전에도크게이바지해왔다.

황회장은주택발코니구조변경합법화,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지자체 입찰 수수료징수폐지, 부적격건설업체퇴출제도도입 등 건설산업의 합리화와 경쟁력 개선에 주력했으며, 중소기업경쟁력강화방안세미나와 경영 전략 강연회를 수시로 개최하는등중소건설업체의경영합리화를적극도모했다.

아울러 경영 혁신과 견실한 성장으로 각종재무비율을개선, 중소기업의경영모델을 제시했다. '선안전 후시공'의 원칙을 준수하고적정한안전관리비를계상, 재해예방에 노력해 무재해 기록을 달성하는 등 안전관리에도심혈을기울여왔다.

건설업에 있어 항상 연구 개발만이 기업의 생존과 연계된다고 인식하는 황 회장은 2002년 기술연구소를 설립,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실행하고 있다. 매년 기술 투자비를 확대하고현장별VE를통해기능향상과공사 원가 절감이 가능한 새로운 시각의 대안을 창출하고 신공법과 신기술, 신개념을활용한경제적인건설업영위를항상검토하고 있다. 또, 건설업계의전형적인품질서비스 부재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1990년대이후부터2007년현재까지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KSA 9001/ISO 9001)를취득하는 한편, 끊임없는품질향상과혁신을시도하고있다.

황 회장은 장기간 대한건설협회 부회장과서울시회장을역임하면서건설관련국제 행사 개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해외 진출과 교류 협력에도 공헌한 바 크다. 개인 자산을 출연, '성일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주거 문화 창출 공로 단체 지원, 장애인 가정 돕기, 안산 바로크 음악회 후원등나눔경영을실천하고있다.

황 회장은 "고객과 함께 아름다운 삶과 멋의연결고리를엮어가는, 벽돌하나, 못 하나에도심혈을기울이는장인정신이깃든 건설을 지향해 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간의 혼을 담은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1972년 재무장관 표창을 시작으로 1981년 국무총리 표창, 1984년 석탑산업훈장, 1994년 동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하기도하였다.

가장기억에남는시공물로경기도박물관과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을꼽은황회장은 이번금탑산업훈장 수상을 계기로 "지난 45년 간의 건설 경영인으로서의 삶을 보다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선후배 동료건설인들과수상의영광을함께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앞으로 '우리나라의건설업을 정리 집대성하는 작업'도 구상하고있다. CJ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